



# 4·30 국회의원 재선거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후보 초청 토론회

## ⑤-자유발언

▷사회자 : 이상으로 방청객 질문 시간을 마치고, 오늘 토론회의 마지막 순서인 후보자별 자유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에게 배정된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이내에서 어떤 내용이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습니다. 4분50초가 지나면 초인종이 울리고 5분이 경과하면 마이크를 끄고, 발언을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이운구 후보님 자유발언 하십시오

▶이운구 후보 :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여러 유권자 여러분께 짐심으로 다가 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경기도의원으로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아픔을 알고 여러분과 함께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 여러분과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제가 들고 나온 공약중에 규제완화 및 철폐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원선 복선화 문제, 민자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북도 신설과 경기북부 고속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수원고속도로가 인천,포천 중심지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는 지하철 7호선을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자도로와 국도가 겹쳐져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쁨과 아픔을 나누는 일, 여러분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일, 그런 일이 있다면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 떨어진다, 다 떨어지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는가, 저는 이 지역에서 그 아픔의 십자가를 지고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그 아픔의 십자가를 지워준다면 목숨까지 바쳐 일할 것입니다.

▷사회자 : 장명재 후보님 시작하십시오

▶장명재 후보 : 유권자의 알 권리,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며 무척 기쁩니다. 처음으로 유권자들 앞에서 저 자신과 저의 공약을 설명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토론을 마치

며, 아쉬운 마음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한 후보가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토론회에는 일절 나오지 않겠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하물며 선관위 주최의 방송토론회도 나오지 않겠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유권자 앞에 자신을 알리는 것은 후보자의 권리인 동시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기호3번 새천년민주당 이운구 후보

## 우리 지역 아픔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기호1번 열린우리당 장명재 후보

## 모 후보의 불참석은 유권자의 알권리 무시

보장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이것이 민주선거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 후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후보가 설명 토론회를 회피한다면 손 치더라도 그것은 그 후보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유권자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유권자의 공약을 위해 출마를 결심한 후보라면 자신의 장단점을 고스란

히 내보일 수 있는 과단성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곧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방송토론회가 있습니다. 들리는 말처럼 그 후보가 참석하지 않는다면 축제의 장이라고 불려야 할 선거가 제 흥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보차를 돌리며 선거를 흥겹게

고 싶습니다. 당당하게 대중에 나서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장명재는 통일의 시대에 연천·포천이 값진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지역 발전을 염원해온 지역 시민들의 숙원을 성취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일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땀땀하게 유권자들에게 저를 밝히고 저를 평가 받고 싶었습니다.

▷사회자 : 이상으로 포천신문 주최 4.30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참석해 주신 후보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무엇쪽 국회의원 재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가운데 실시되어 진정한 대표가 선출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 :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누가 연천·포천을 위해 일할 사람인가. 누가 새로운 미래를 만들 사람인가. 여러분께 평가하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또한 새로운 시대에 연?포천이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를 우리는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 사람은 경제를 알고, 시대를 읽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항상 얼굴을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발로 뛴 사람이어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전자를 만들기 위해 방잡을 잇고 보냈던 시간들과, 국회에 들어와 국정을 감시하기 위해 휴일을 잊으며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택, 새로운 사람을 원하신다면 저 장명재를 지켜보아주시십시오. 저 장명재가 새로운 나라, 살기좋은 연·포천, 여러분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웃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자 : 이상으로 포천신문 주최 4.30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를 모두 마칩니다. 참석해 주신 후보님과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무엇쪽 국회의원 재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한 가운데 실시되어 진정한 대표가 선출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리 :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 4·30 국회의원 재선거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후보 사무소개소식

4.30 국회의원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재선거 후보 등록이 15일, 16일 이틀간 실시됐으며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등 후보 3명은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체제를 갖추었다. 열린우리당 장명재 후보는 16일 오전 11시 포천시 신운동에서 김현미 경기도당위원장과 당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으며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는 16일 11시 포천시 어룡동에서 김영선 한나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당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또 새천년민주당 이운구 후보는 지난 15일 오후 2시 연천군 전곡읍에서 한화갑 대표와 당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각 후보들은 17일부터 오는 29일 자정까지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편집자주>

#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3명 후보 등록

## 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으로 선거운동 나서



## “해상왕 장보고 같은 경제전문가 필요하다”

열린우리당 장명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16일 장명재 후보 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김현미 열린우리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이철우 의원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와 같다”고 전제하고 “이철우 의원은 슬프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 상대가 후보라니 그대로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미 경기도당 위원장은 또 “열린우리당은 아직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힘있는 정당으로 포천시와 연천군의 발전 공약을 장명재 후보 손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장 후보야말로 삼성전장에서 근무한 준비된 경제전문가로 포천과 연천을 전국 최고의 경제구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장명재 후보는 정책발표회에서 “포천, 연천은 접경지역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시설보호 구역 등 수많은 규제 때문에 열악한 지역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낙후지역”이라며 “지금 포천,연천에는

인기 드라마 해신에서 방영되고 있는 해상무역도시를 건설한 장보고와 같은 경제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후보는 “포천,연천은 더 이상 보수지역이 아니라 개혁과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지역으로, 이철우 의원을 당선시켰던 지역으로 지속적인 변화의 바람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장 후보는 정책공약으로 지하철 7호선 포천연장사업 등 교통인프라 구축과 가산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관광산업 단지 조성, 경원선 복선화, 외국어 특목고 유치 등을 내세웠다. 김현미 경기도당 위원장은 정책공약을 하는 자리에서 “경기북부 지역은 남부에 비해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인데, 더욱이 포천,연천은 경기북부에서도 개발이 가장 늦은 곳이다. “열린우리당과 경기도당은 경기 분도를 성사시켜 포천,연천 지역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승환 기자 forme65@paran.com

## “인생의 마지막 기회, 승리의 깃발 올리겠다”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4.30국회의원 재선거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한나라당 고조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16일 오전 11시 포천시 어룡동 사무소에서 김영선 한나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홍문종 경기도당위원장,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 고홍길 국회의원, 비례대표인 황진하 의원, 이성구 의원 등 중앙당 관계자와 당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개소식에서 고조흥 후보는 인사 말을 통해 “5년동안 한나라당 공전을 세 번 받았다는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다”며 “세번씩이나 힘을 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온 힘을 다해 승리의 깃발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홍문종 경기도당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분위기를 보니 고조흥 후보가 꼭 승리할 것”이라며 “우리 모든 시민들이 힘을 합쳐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자”고 말했다. 이어 김영선 한나라당 공동선거대책위

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기호2번 고조흥 후보야말로 우리의 희망으로 자존심을 갖고 뛰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홍길 국회의원은 “정계거물급들이 포천·연천 국회의원을 지냈으니 오늘 개발이 안되고 황폐한 지역을 보니 착잡한 심정이었다”며 “고조흥 후보를 당선시켜 지역발전을 이루자”고 말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에는 2번입니다”라며 흥분하지 말 것과 “순님 없이 출서 기다리는 택시기사와 청년실업자, 실직 가정들에게 연락해서 2번을 찍어 달라고 요구하라”고 부탁했다. 비례대표 황진하 의원은 “육사 쪼기로서 소위중위 시절에 연천과 포천에 근무한 사실을 강조하고 “국가안보를 실천할 수 있는 고조흥 후보를 꼭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고조흥 후보와 참석한 내빈들에게 꽃다발 전달식과 승리를 다짐하는 파티팅을 의치며 현판식을 갖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검증된 일꾼으로서 국가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

새천년민주당 이운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4.30국회의원 재선거 포천시·연천군 선거구 새천년민주당 이운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15일 오후 2시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사무소에서 새천년민주당 한화갑 대표, 신낙균 수석부대표겸 경기도당위원장, 이운수 전 예산결산위원장,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 등 내빈과 당원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운구 후보는 “한화갑 대표와 내빈 등 참석자들에게 원근각처에서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개소식에 참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며 “경기도의회 의원 시절 도경정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지역을 위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에서 검증된 일꾼으로서 지금은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생활하는 생활정치의 선구자로 최일선에 있음을 바탕으로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에서의 선전을 다짐”하기도 했다. 한화갑 대표는 축사를 통해 “역사와

전통이 있는 민주당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기호3번 이운구 후보를 당선시켜 지역 발전의 초석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이운수 전 예산결산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제대로 된 일꾼, 언제나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일꾼을 뽑아 줄 것”을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임창열 전 경기도지사는 “이운구 후보가 경기도의원 시절 함께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것에 대한 격려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이 되면 훌륭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 앞서 한화갑 대표는 연천군 전곡지역을 순회하면서 재래시장을 방문해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하며 연천출신 이운구 후보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